

2012. 8. 27.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8월 28일(화)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발간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전망

- KDI(원장: 현오석)는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KIEP, 국립외교원과 공동으로, 선도적 의제 설정과 모범사례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다룬 대중서적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을 발간
 -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반세기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정치·사회 발전의 모범 사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의제 설정에 적극 기여해 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향후 역할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
 - 책의 발간을 통해 최빈국이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발전한 세계 최초 국가로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속적 역할 확보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

□ 본문은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객관적,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개발·원조, 녹색성장 등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된 주요 부문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함.

○ 대한민국이 국력 신장과 국격 향상을 바탕으로 국제역학관계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글로벌 무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힘.

○ 또한 최근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녹색성장 아젠다 제시 등 대한민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며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를 제시함.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갈망하는 희망의 리더십을 갖춘 국가로서의 책임의식 아래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시기를 맞이하였음을 논하고, 국제개발의 동반자이자 협력조성자로서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데 공헌하기 위한 향후 역할을 모색함.

□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발간에는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

○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편찬위원회는 KDI(원장: 현오석),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 KIEP(원장: 채욱), 국립외교원(원장: 김병국)으로 구성

* KDI(원장: 현오석)는 지난 5월 8일,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바 있음.

❖ 문의: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02-958-4206)

❖ 첨부 1. 목 차

I. 총론-대한민국, 희망의 리더십 3

II. 외교 27

1.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한국외교의 꿈 29
2. 한미동맹, 글로벌동맹으로 발전하다 49
3. 신아시아외교, 가까운 이웃 아시아를 다시 보다 77
4. 문화와 인적자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107

III. 안보 129

1. 원칙있게, 유연하게 ... 대북정책의 새 패러다임 131
2. 한국군, 지구촌의 든든한 친구 151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리다 187

IV. 경제 235

1. G20 서울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의 새 이정표 237
2.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식, 경제위기 극복의 길 259

V. 통상 279

1. 한국, FTA로 개방의 롤 모델이 되다 281
2. 무역 1조 달러, 위기에서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 307
3. 자원외교, 상생과 공존에서 길을 찾다 335

VI. 개발·원조 365

1. 개발의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다 367
2.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 385
3. 더 큰 꿈을 품은 한국형 ODA 397
4. 단순 원조에서 효과적 개발로...한국, 개발·원조의 방향을 전환하다 417

VII. 녹색성장 447

1. 녹색성장패러다임의 세계자산화 449
2. 글로벌 녹색성장 아키텍처의 태동 471

❖ 첨부 2. 집필진(가나다순)

김영귀 KIEP 지역통상팀장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윤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김정곤 KIEP 전문연구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성화 국가브랜드위원회 사무관

박영호 KIEP 아프리카 팀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이재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숙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정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 첨부 3. 보고서 요약

제1장. 총론

-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정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 동반자이자 협력조성자로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국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중견국가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글로벌 리더십이란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공동선)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모범사례(Role Model)로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이뤄진 리더십 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양자와 다자외교를 통해 연대를 형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 전략의 요체임.
- 자유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지지하며 특정의 제에 초점을 맞춰 틈새외교(Niche Diplomacy)를 펼치는 기존의 중견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동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개발(Development) 문제를 다루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설득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세계 질서가 다극체제로 개편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중견국가들이 공정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가의 경우 군사력을 투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자국의 국익과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평이 열림.

○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음.

- 대한민국의 1인당 GDP(경상 기준)는 1960년 156달러에서 2010년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 통상 산업국가로 도약하였음.

- 또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전 세계 187개국 중 15위에 올랐고, 교육·보건·소득 등 여러 측면에서 고른 발전을 해오고 있음.

-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쟁선거·언론의 자유·반부패 등 정치 제반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음.

□ 1990년대 이후 신흥 강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판도변화로 인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재편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 강국이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에너지·금융 등 주요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음.

○ 1950년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으나, 2050년 '아시아의 세기'가 실현될 경우 51%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오늘날은 축적된 리더십 자산과 변화된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임.

○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군사·경제력 등 Hard Power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Soft Power도 함께 배양하여 균형 있는 리더십 자산을 확보해야 함.

○ 올바른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목표설정시 국익을 넘어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공공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행위주체 전환이 필요함.

○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하여 확인된 조직력 등의 물리적 역량과 G20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지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 및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우호관계,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아시아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견국가와 가교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협력, 녹색성장, 경제위기 예방 및 대응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제 설정과 규범 확립에 기여하고, 공적개발원조와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제공헌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2장. 외교

-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이 기본 외교정책으로 추진해온 실용주의 외교, 중견국가로서 추진한 신아시아외교,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최근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외교에 대해 고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실용외교]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외교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성숙한 세계 국가'를 대외관계의 목표로 삼은 한국의 실용외교와 이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세계적 차원으로 설명
- [신아시아 외교] 한국은 신아시아외교를 통해 아세안, 오세아니아, 서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한 후,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
 - 한국은 ASEAN과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상호 이익 관계를 형성했으며, 호주 및 인도는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
 - 신아시아 외교는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 대(對) 아시아 외교의 구체화라는 방향성을 이어 받으며 이를 보다 심화시켜 발전하고 있음.
- [한미관계]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화해간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의 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재정의하여 공통된 전략적 목표와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결과를 명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문화외교] 한류 문화의 세계적 리더십, 다문화 사회, 글로벌 코리언 등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우리 문화 교육의 방향에 관해 논의

제3장. 안보

-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고찰하고,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와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의제 설정 등 주요 성과를 돌아본 후 향후 안보 분야의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
- [대북정책]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통 안보 위협인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바겐’ 구상을 제시하였고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한국정부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간주하여, 유엔결의안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 역할 수행에 많은 성과를 거둠.
 - 한국은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중견국가로서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여, 한국군의 국제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ODA와의 연계, 민간요원 및 경찰의 투입 방안 등에 대해 숙고해야 함.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안보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입지를 구축하고,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는 등 국익 향상에 기여
 - 한국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석자들 간 가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국제 안보분야에서 중견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입지를 구축함.
 - 기존의 핵테러 방지 의제 외에 핵 안전과 방사능 테러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하여 글로벌 의제설정에 지적으로 기여

제4장. 경제

- [G20 정상회의] 신흥국의 부상과 국제논의 다자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발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후, G20 서울정상회의의 서울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는 글로벌 경제의 새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도출했음.
-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G20 체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의제를 제안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개발, 글로벌 금융안전망, 비즈니스 서밋을 신규의제로 상정함.
- G20 의장 수행으로 얻은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적인 발휘가 필요하며,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G20이 글로벌 조정위원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임.
- [경제위기 극복] 1997년 경제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외화 유동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채택하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함.
-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의제를 제시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음.
- 외화 확보와 경상수지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충,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개혁을 아우르며 개도국 및 주요 선진국에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됨.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창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목 받음.

제5장. 통상

- 본 장에서는 FTA네트워크 형성, 무역 1조 달러 달성, 새로운 자원개발협력 모델 구축 등 통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논의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함.
- [FT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의 표류,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 등의 국제적 배경 하에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구축한 FTA 네트워크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함.
 - 한국은 FTA를 통해 뛰어난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을 이루면서 무역자유화의 롤 모델을 제시함.
 - FTA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내부적 합의 부족, 낮은 FTA 활용률, FTA의 영향을 받는 국내분야에 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방 등 내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FTA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역 1조 달러 달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함. 금융위기 이전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7%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09-2011) 3.0%로 증가함.
 - 한국은 신보호무역주의의 태동을 방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갈 과제를 안고 있음.
- [에너지 자원협력] 한국은 자원 확보 뿐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에서 산업협력과 상생발전을 모색함.
 - 한국은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생'과 '상생'의 가치 아래 협력대상국과의 상호 발전을 추구함.

제6장. 개발·원조

-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한 한국은 개발·원조 분야의 글로벌 의제 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

- [G20 개발의제] 원조에 초점을 맞춘 G8의 개발의제와 달리 현지 역량배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원조에서 벗어나는 성장지향적 개발의제를 제시하여 국제적인 호응을 얻음.
 - G20 개발의제를 제시한 국가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독려하고, 향후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

- [OECD DAC 가입] 한국은 OECD DAC 가입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선진공여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인정받음.

- [ODA 확대] ODA의 기본이념과 목표를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ODA의 규모와 구성을 확대·개선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배양할 필요
 - '중기 ODA 확대계획'(2008.8)에 의거하여 ODA/GNI 규모를 2007년 0.07%에서 2015년 0.25%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
 - ODA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HLF4]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는 국제개발협력
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개발주
체의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회의로 인정받음.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효과적 개발을 위한 4대원칙 (주
인의식, 결과중심, 포용성, 책임성)을 제시, ‘원조를 넘어선
(beyond aid)’ 개발을 추구하며 국제의제설정에도 기여함. 나아
가 기존 원조효과성 중심의 논의를 개발 효과성을 위한 논의
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제7장. 녹색성장

-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정부가 녹색성장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화를 위해 추진한 글로벌 녹색성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 봄.
- 1960년대 이후 신흥경제국들이 갈색성장경쟁 대열에 들어선 후 그 결과로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 파괴가 이어짐. 녹색성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기되어 2008년 한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덴마크와의 녹색성장동맹 결성,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의 발족, 녹색기술센터(GTC-K) 설립 등의 성과를 올림.
- ODA의 녹색화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추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성장 논리에 입각한 UN기후변화협상의 프레임 쇄신 노력, 녹색성장 전략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의 추구, 녹색성장의 G20 정상회의 상정 등 국제 의제 설정에 기여
- 대한민국은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해 녹색성장의 신념을 공유하는 국가, 기관,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연합해 녹색성장패러다임 확산을 위해 이론 및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파시키는 협력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